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2년 6월호

Contents

<통계 요약>	1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2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5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9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10
III.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13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15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18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23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25



<통계 요약>

한일 무역의 2022년 5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61,510	21.3	63,220	32.0	-1,710
일본 부분	2,831	19.9	4,258	7.3	-1,427
일본 비중	4.6		6.7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5월 상황

	2021년 5월	2022년 5월	증감률
수출(백만¥, %)	6,260,587	7,252,022	15.8
수입(백만¥, %)	6,473,520	9,637,845	48.9
수지(백만¥, %)	-212,933	-2,385,823	1020.5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6월 29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2년 2월		2022년 3월		2022년 4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7,613	2,604	7,589	6,464	10,826	2,761
한국 부분(억¥)	-168	102	73	-417	87	74
한국 비중(%)	-	3.9	1.0	-	0.8	2.7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2년 4월 8일, 5월 12일, 6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5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2022년 5월			증감률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2년 5월		
	2021년 5월	2022년 5월	증감률			2021년 5월	2022년 5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74,463	175,922	136.3	전체	10,035	147,000	1364.9	
방한 일본인	1,403	3,701	163.8	방일 한국인	950	8,800	826.3	
일본인 비중	1.88	2.10		한국인 비중	9.47	5.99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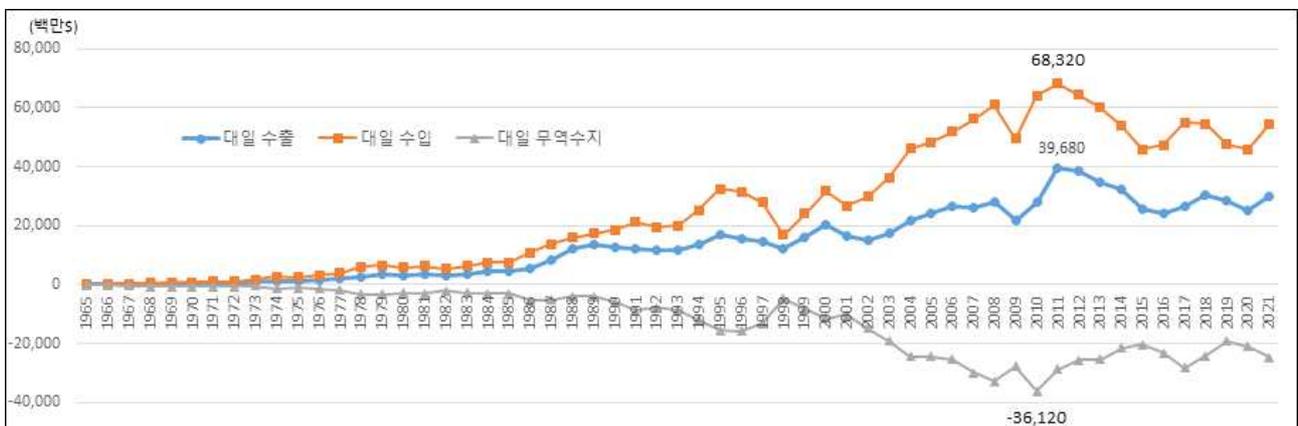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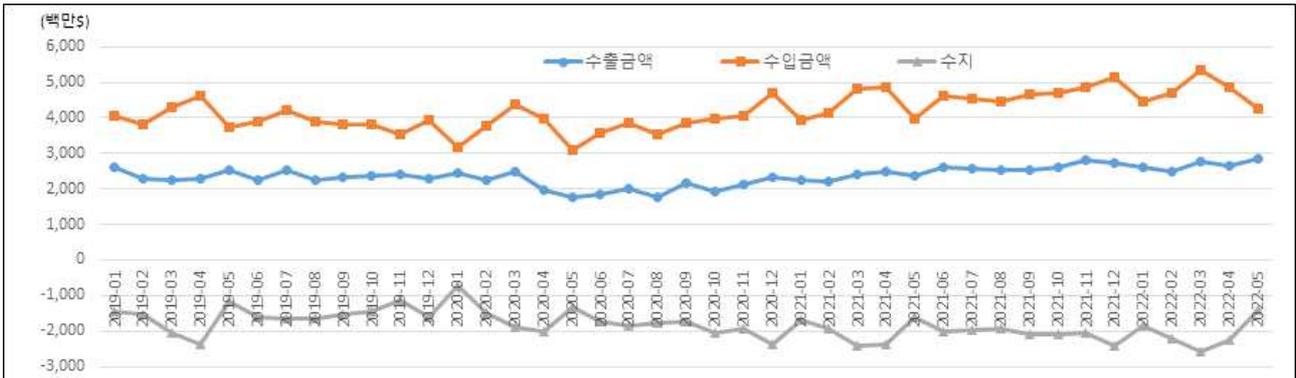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 이후 통계에서 한 해도 예외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2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6.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2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2021년에는 대일 수출(300.6억 달러)과 수입(546.4억 달러)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수입 증가액이 수출 증가액보다 더 커서 대일 무역적자(245.8억 달러)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22년 5월에는 전월대비 수출은 증가하였고 수입은 감소하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대일 수출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5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대일 수입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5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5월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또는 정체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5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 한일 무역의 2022년 5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2년 5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일(對日)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9.9% 증가하였고, 대일 수입은 동(同) 7.3% 증가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2년 5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61,510	21.3	63,220	32.0	-1,710
일본 부분	2,831	19.9	4,258	7.3	-1,427
일본 비중	4.6		6.7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2년 5월에 한국전체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21.3% 증가하여 615.1억 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출은 동(同) 19.9% 증가하여 28.3억 달러가 되었음
- 2022년 5월에 한국전체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32.0% 증가하여 632.2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입은 동(同) 7.3% 증가하여 42.6억 달러가 되었음

- 2022년 5월에 한국 전체 무역수지는 17.1억 달러 적자였고, 대일 무역수지는 14.3억 달러 적자였음
 - 2022년 5월에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6%였고, 수입 경우는 6.7%였음
- <표2> 및 <표3>은 2022년 5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MTI 코드 2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경우는 8개 품목이, 수입 경우는 7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2> 한국의 2022년 5월 대일(對日) 수출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1년 5월(백만\$, %)			2022년 5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2,362	32.5	-1,607	2,831	19.9	-1,427
1	광물성연료	330	186.2	269	487	47.9	430
2	철강제품	291	16.8	-160	363	24.7	-327
3	정밀화학제품	215	-6.6	-126	286	33.0	-44
4	석유화학제품	158	120.3	-132	225	42.1	-54
5	전자부품	178	34.1	-391	201	13.3	-437
6	산업용전자제품	97	-9.9	-134	142	46.2	-46
7	금속광물	171	135.0	101	140	-17.7	-2
8	농산물	100	8.1	82	98	-2.2	77
9	비철금속제품	60	90.4	-65	80	33.6	-65
10	기계요소공구및금형	77	2.1	-29	74	-4.2	-34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2년 5월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1년 5월(백만\$, %)			2022년 5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3,968	27.8	-1,607	4,258	7.3	-1,427
1	철강제품	450	24.8	-160	690	53.3	-327
2	전자부품	568	64.0	-391	638	12.3	-437
3	정밀기계	455	11.8	-407	491	8.0	-439
4	정밀화학제품	341	15.9	-126	330	-3.0	-44
5	석유화학제품	290	116.7	-132	279	-3.6	-54
6	산업용전자제품	231	10.4	-134	188	-18.4	-46
7	플라스틱제품	184	15.6	-120	186	1.5	-124
8	비철금속제품	124	40.3	-65	145	16.3	-65
9	금속광물	69	151.3	101	142	105.1	-2
10	산업기계	137	-5.5	-76	139	1.8	-66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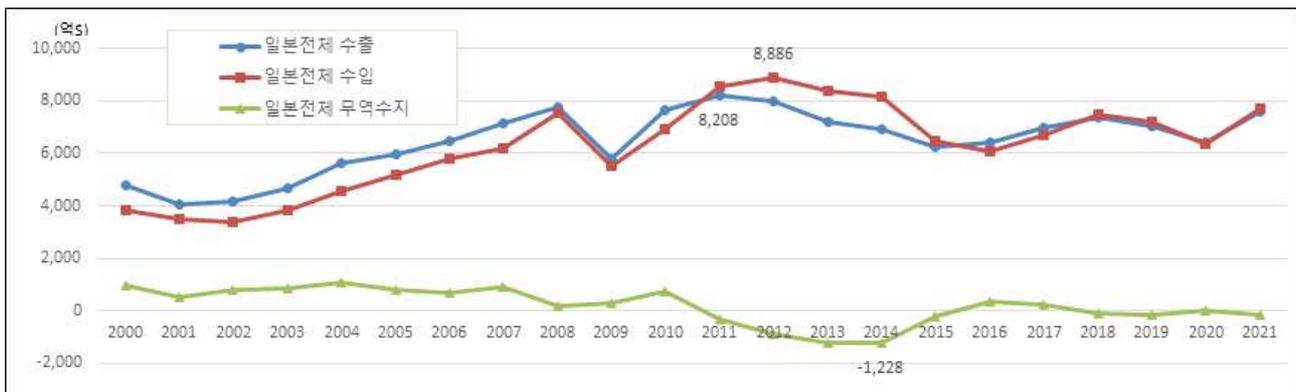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광물성연료(47.9%), 산업용전자제품(46.2%) 등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금속광물(-17.7%), 기계요소공구및금형(-4.2%) 2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금속광물(105.1%), 철강제품(53.3%) 등 7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산업용전자제품(-18.4%), 석유화학제품(-3.6%), 정밀화학제품(-3.0%) 3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3>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 2016년과 2017년 흑자, 2018년과 2019년 적자, 2020년 흑자, 2021년 적자로 나타남
- 2020년 일본전체 수출은 6,399억 달러, 수입은 6,357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무역수지는 42억 달러 흑자였음
- 2021년 일본전체 수출은 7,586억 달러, 수입은 7,716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무역수지는 130억 달러 적자였음

□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5월 상황

- <표4>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5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적자폭이 확대되었음

<표4>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5월 상황

	2021년 5월	2022년 5월	증감률
수출(백만¥, %)	6,260,587	7,252,022	15.8
수입(백만¥, %)	6,473,520	9,637,845	48.9
수지(백만¥, %)	-212,933	-2,385,823	1020.5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6월 29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철강, 광물성연료, 반도체등전자제품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5.8% 증가하여 7조 2,520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조유(原粗油),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48.9% 증가하여 9조 6,378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 2,129억 엔 적자에서 당월 2조 3,858억 엔 적자로 적자 금액이 1020.5% 증가하였음
- <표5>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5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부 감소 지역도 있지만 수출 수입 모두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9.0%, 수입의 44.9%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수지는 520억 엔 적자였음
 - 중국은 수출의 19.2%, 수입의 20.7%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감소, 수입은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중국 무역적자는 6,079억 엔이었음
 - 홍콩은 수출의 5.1%, 수입의 0.1%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증가, 수입은 감소하였고, 일본의 對홍콩 무역흑자는 3,614억 엔이었음
 - 대만은 수출의 7.5%, 수입의 4.4%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1,216억 엔이었음
 - 한국은 수출의 7.6%, 수입의 4.1%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한(對韓) 무역흑자는 1,601억 엔이었음
 - 미국은 수출의 17.3%, 수입의 9.6%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미(對美) 무역흑자는 3,279억 엔이었음
 - 서유럽 전체에 대해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독일은 수출의 2.5%, 수입의 2.6%를 차지하였음
 - 영국은 수출의 1.2%, 수입의 0.7%를 차지하였음

〈표5〉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5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총액	7,252,022	100.0	15.8	9,637,845	100.0	48.9	-2,385,823	1020.5
아시아	4,275,463	59.0	17.5	4,327,496	44.9	38.9	-52,033	-
중국	1,389,804	19.2	-0.2	1,997,699	20.7	25.8	-607,895	211.5
홍콩	370,329	5.1	22.6	8,901	0.1	-10.6	361,428	23.8
대만	542,896	7.5	20.1	421,297	4.4	55.6	121,599	-32.9
대한민국	552,935	7.6	41.7	392,796	4.1	44.6	160,139	34.9
싱가포르	223,653	3.1	29.9	109,190	1.1	38.7	114,463	22.5
태국	322,359	4.4	20.2	289,752	3.0	33.9	32,607	-37
말레이시아	172,288	2.4	28.3	260,822	2.7	70.0	-88,534	361.7
인도네시아	150,993	2.1	34.1	297,123	3.1	101.9	-146,130	323.0
필리핀	131,977	1.8	42.0	120,117	1.2	29.3	11,860	*389
베트남	198,126	2.7	19.5	279,167	2.9	45.2	-81,041	205.1
인도	142,037	2.0	33.6	72,934	0.8	68.9	69,103	9.4
대양주	194,856	2.7	22.7	1,059,164	11.0	130.1	-864,308	186.6
호주	135,865	1.9	19.6	971,215	10.1	137.3	-835,350	182.5
뉴질랜드	35,372	0.5	45.7	46,228	0.5	85.5	-10,856	1562.6
북미	1,322,003	18.2	11.1	1,128,451	11.7	30.4	193,552	-40.4
미국	1,254,844	17.3	13.6	926,986	9.6	24.2	327,858	-8.5
캐나다	67,158	0.9	-21.3	200,611	2.1	69.3	-133,453	302.1
중남미	279,007	3.8	34.5	390,779	4.1	49.8	-111,772	108.9
서유럽	759,869	10.5	5.9	1,080,890	11.2	18.1	-321,021	62.6
독일	183,027	2.5	-0.4	255,307	2.6	14.2	-72,280	81.5
영국	88,749	1.2	-8.1	70,205	0.7	17.0	18,544	-49.3
프랑스	60,326	0.8	5.5	112,074	1.2	46.6	-51,748	168.1
네덜란드	109,798	1.5	-2.0	28,621	0.3	4.2	81,177	-4.0
이탈리아	56,709	0.8	27.1	138,277	1.4	33.2	-81,568	37.8
벨기에	67,306	0.9	15.4	22,290	0.2	-79.9	45,016	-
스위스	35,968	0.5	-15.2	84,773	0.9	11.8	-48,805	46.1
스웨덴	13,914	0.2	28.4	39,672	0.4	65.1	-25,758	95.2
아일랜드	34,306	0.5	312.8	104,525	1.1	67.4	-70,219	29.7
스페인	24,733	0.3	39.6	90,475	0.9	114.7	-65,742	169.3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138,904	1.9	-6.6	260,737	2.7	44.4	-121,833	282.3
중동	181,501	2.5	43.3	1,252,609	13.0	129.8	-1,071,108	155.9
아프리카	100,418	1.4	36.1	137,720	1.4	5.4	-37302	-34.4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6월 29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5월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9개 품목 중 수출도 수입도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는 광물성연료(404.8%), 원료별제품(35.0%), 원료품(20.9%) 등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수송용기기(-5.3%) 1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 수출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원료별제품(4.3%), 기타(2.7%), 일반기계(2.6%)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는 광물성연료(147.9%), 원료품(45.1%), 전기기기(36.0%) 등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수송용기기(-14.3%) 1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광물성연료(24.2%), 전기기기(5.8%), 기타(4.1%)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6>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5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총액	7,252,022	100.0	15.8	15.8	9,637,845	100.0	48.9	48.9
1 식료품	87,867	1.2	18.2	0.2	769,871	8.0	32.1	2.9
2 원료품	152,221	2.1	20.9	0.4	789,273	8.2	45.1	3.8
3 광물성연료	198,809	2.7	404.8	2.5	2,630,622	27.3	147.9	24.2
4 화학제품	943,051	13.0	15.5	2.0	1,071,569	11.1	25.4	3.3
5 원료별제품	1,025,997	14.1	35.0	4.3	899,803	9.3	31.0	3.3
6 일반기계	1,390,925	19.2	13.3	2.6	753,292	7.8	21.7	2.1
7 전기기기	1,279,153	17.6	11.1	2.0	1,410,333	14.6	36.0	5.8
8 수송용기기	1,122,232	15.5	-5.3	-1.0	239,989	2.5	-14.3	-0.6
9 기타	1,051,767	14.5	19.5	2.7	1,073,093	11.1	32.8	4.1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6월 29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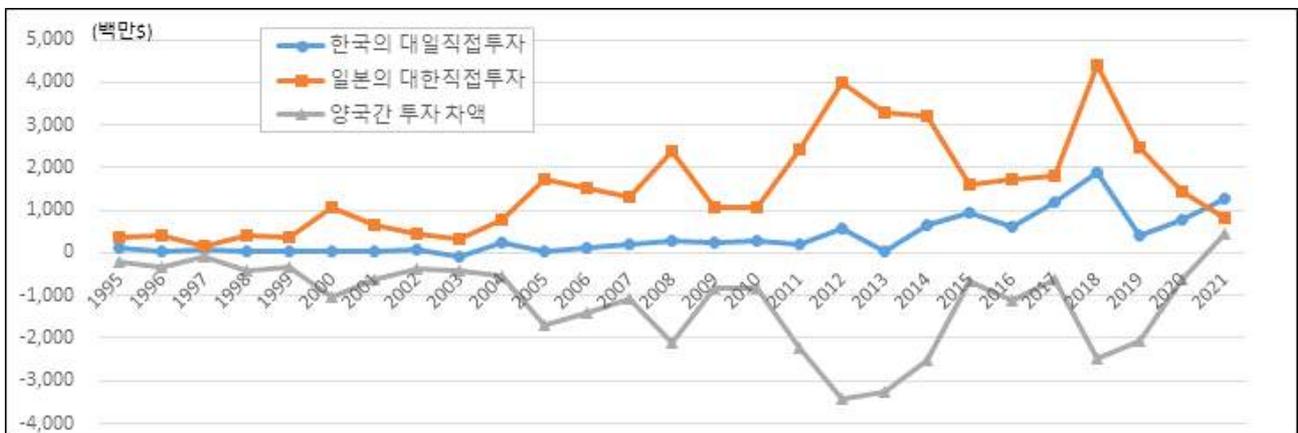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는데, 2021년에는 역전되었음

<그림4>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2021년 경우도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한일간 갈등 및 COVID-19 등으로 연속적으로 전년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음
- 2021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12.60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273.25억 달러의 4.61%를 차지하였음
- 2021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8.25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1,498.14억 달러의 0.55%를 차지하였음
- 2021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보다 4.35억 달러 많았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7>은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7>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2년 2월		2022년 3월		2022년 4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7,613	2,604	7,589	6,464	10,826	2,761
한국 부분(억¥)	-168	102	73	-417	87	74
한국 비중(%)	-	3.9	1.0	-	0.8	2.7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2년 4월 8일, 5월 12일, 6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2년 3월 7,589억 엔에서 4월 10,826억 엔으로 증가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2년 3월 73억 엔에서 4월 87억 엔으로 증가하였고, 4월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은 0.8%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2년 3월 6,464억 엔에서 4월 2,761억 엔으로 감소하였음
- 한편,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2년 3월 -417억 엔에서 4월 74억 엔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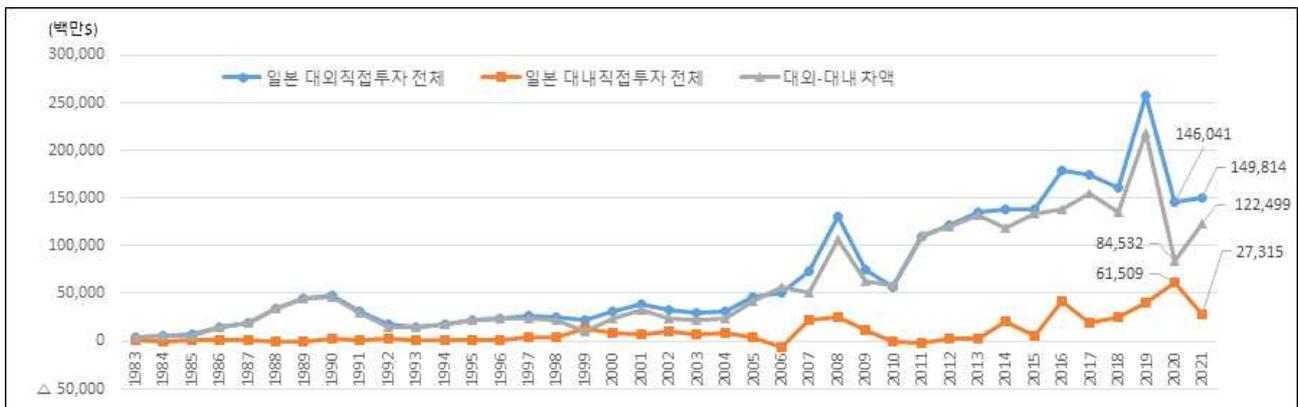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20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1,460억 달러로 되었지만, 대내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상최대인 615억 달러에 달했으며,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845억 달러로 되었음
- 2021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1,498억 달러, 대내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273억 달러로 되었고,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증가하여 1,225억 달러로 되었음

<그림5>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8>은 2022년 4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10,826억 엔이었으며,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2,761억 엔이었음
-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10,826억 엔(실행 63,218; 회수 52,392)으로 플러스였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지역별로 유럽(43.6%), 아시아(36.4%), 북미(22.6%), 중동(0.5%)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고, 중남미, 대양주, 아프리카는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대외직접투자 순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곳은 미국(2,079억 엔), 독일(1,589억 엔) 등이었음
-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2,761억 엔(실행 32,702; 회수 29,940)으로 플러스였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지역별로 중남미(42.1%), 북미(40.4%), 아시아(34.8%) 등으로

- 부터의 투자가 많았으며, 대양주, 아프리카 경우는 순투자가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대내직접투자 플러스 순투자를 많이 한 곳은 영국(1,152억 엔), 미국(1,108억 엔) 등이었음

〈표8〉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2022년 4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합계	63,218	52,392	10,826	100.0	32,702	29,940	2,761	100.0
아시아	12,098	8,159	3,939	36.4	7,839	6,879	961	34.8
중국	1,225	301	924	8.5	1,855	1,570	285	10.3
홍콩	565	185	381	3.5	774	878	-104	-3.8
대만	1301	508	793	7.3	289	83	207	7.5
한국	129	43	87	0.8	102	28	74	2.7
싱가포르	5,914	6,124	-210	-1.9	4,414	4,048	365	13.2
태국	666	349	316	2.9	118	262	-144	-5.2
인도네시아	282	140	143	1.3	0	—	0	0.0
말레이시아	140	60	80	0.7	286	9	277	10.0
필리핀	132	41	91	0.8	—	—	—	—
베트남	351	112	239	2.2	1	—	1	0.0
인도	1316	246	1,071	9.9	0	—	0	0.0
북미	32,508	30,056	2,452	22.6	9,160	8,044	1,115	40.4
미국	31,855	29,775	2,079	19.2	9,151	8,043	1,108	40.1
캐나다	653	280	373	3.4	8	1	7	0.3
중남미	1,831	1,957	-127	-1.2	1,494	331	1,163	42.1
멕시코	230	953	-723	-6.7	—	5	-5	-0.2
브라질	160	247	-87	-0.8	—	—	—	—
케이만제도	225	144	81	0.7	441	297	144	5.2
대양주	262	325	-62	-0.6	2,175	2,850	-675	-24.4
호주	86	254	-167	-1.5	2197	2850	-653	-23.7
뉴질랜드	126	62	64	0.6	1	—	1	0.0
유럽	15,658	10,939	4,720	43.6	12,029	11,682	347	12.6
독일	3,142	1,553	1,589	14.7	1,813	1,812	1	0.0
영국	3,386	3,696	-309	-2.9	4,994	3,842	1,152	41.7
프랑스	299	295	4	0.0	551	610	-59	-2.1
네덜란드	1,741	253	1,487	13.7	1,682	1,381	301	10.9
이탈리아	17	5	12	0.1	1,174	1,206	-33	-1.2
벨기에	2,368	1,802	566	5.2	494	585	-91	-3.3
룩셈부르크	1,387	1,294	93	0.9	12	9	3	0.1
스위스	123	12	111	1.0	914	1,986	-1,071	-38.8
스웨덴	107	143	-36	-0.3	34	11	23	0.8
스페인	18	2	17	0.2	165	156	10	0.4
러시아	46	—	46	0.4	—	—	—	—
중동	122	71	51	0.5	4	5	-1	0.0
아프리카	740	886	-146	-1.3	1	150	-149	-5.4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2년 6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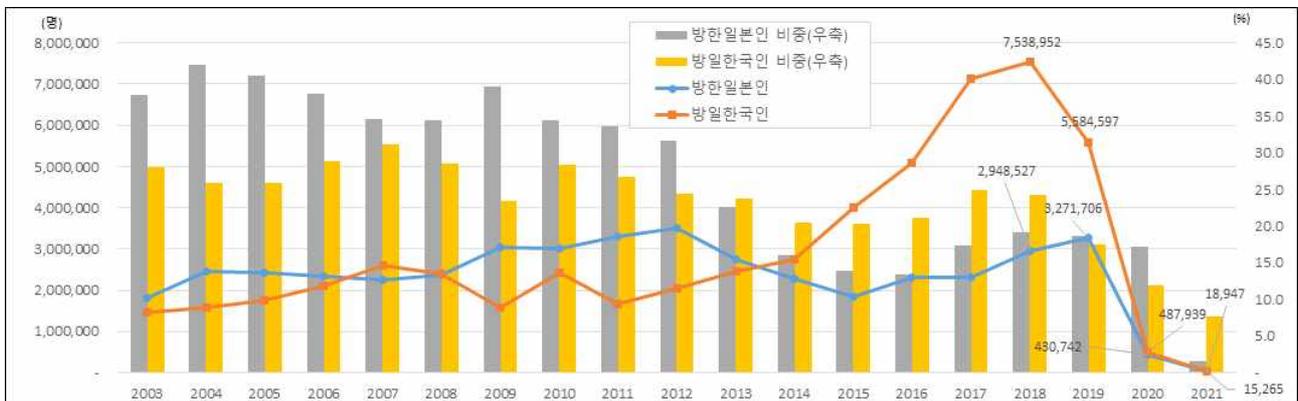
Ⅲ.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방일한국인 및 방한일본인 양쪽 모두 크게 감소하였음

<그림6>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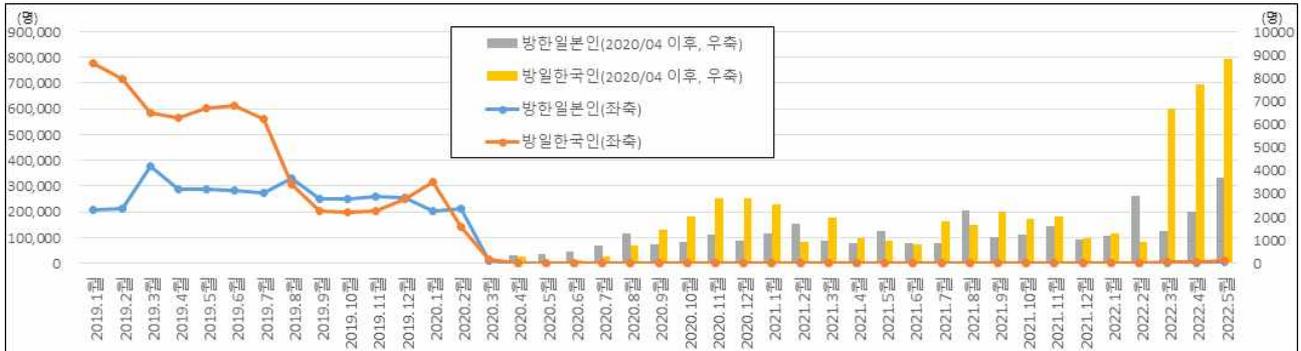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하여 3,271,706명에 달하였으나,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430,742명으로, 2021년에는 15,265명으로 감소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9년 18.7%, 2020년 17.1%에서 2021년에는 1.6%로 감소하였음(방한외국인 총수는 2019년 17,502,756명, 2020년 2,519,118명, 2021년 967,003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7,538,952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감소하여 5,584,597명이 되었고,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 487,939명, 2021년에 18,947명으로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방일외국인 총수의 증가에 기인), 2019년 17.5%에서 2020년 11.9%, 2021년에는 7.7%로 감소하였음(방일외국인 총수는 2019년 31,882,049명, 2020년 4,115,828명, 2021년 245,862명)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7>은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7>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월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1년 1월 1,299명, 2월 1,719명, 3월 949명, 4월 872명, 5월 1,403명, 6월 875명, 7월 881명, 8월 2,258명, 9월 1,142명, 10월 1,237명, 11월 1,623명, 12월 1,007명, 2022년 1월 1,162명, 2월 2,934명, 3월 1,397명, 4월 2,231명, 5월 3,701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감소 그리고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일한국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1년 1월 2,535명, 2월 910명, 3월 1,956명, 4월 1,076명, 5월 950명, 6월 835명, 7월 1,808명, 8월 1,647명, 9월 2,224명, 10월 1,921명, 11월 2,021명, 12월 1,064명, 2022년 1월 1,264명, 2월 913명, 3월 6,694명, 4월 7,700명, 5월 8,800명)

□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5월 상황

- <표9>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5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류인원이

COVID-19 영향으로 인해 2019년동월대비 방한일본인 및 방일한국인 모두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모두 증가하였음

<표9>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5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1년5월	2022년5월	증감률		2021년5월	2022년5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74,463	175,922	136.3	전체	10,035	147,000	1364.9
방한 일본인	1,403	3,701	163.8	방일 한국인	950	8,800	826.3
일본인 비중	1.88	2.10		한국인 비중	9.47	5.99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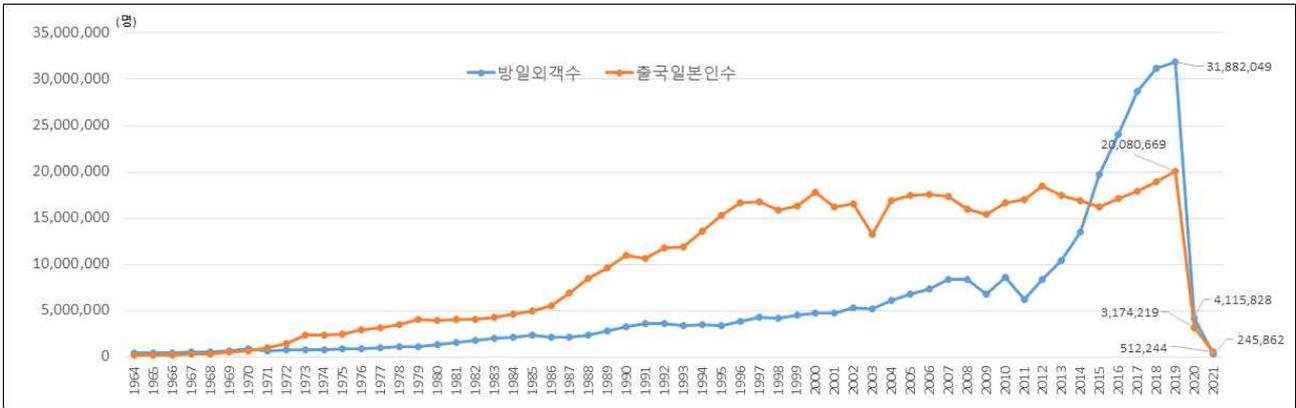
- 2022년 5월 방한외국인(교포 포함) 전체 수는 175,92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6.3% 증가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3,70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3.8% 증가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21년 5월 1.88%에서 2022년 5월 2.10%로 증가하였음
- 2022년 5월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14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64.9% 증가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8,8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26.3% 증가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21년 5월 9.47%에서 2022년 5월 5.99%로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8>은 일본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1964년 이후 1970년까지는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1971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출국일본인수가 방일외객수를 초월하였으나, 2015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로 인해 방일외객수는 2019년에 31,882,049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출국일본인수 20,080,669명보다 11,801,380명 더 많음
- COVID-19 영향으로 인해 2020년부터 방일외객수와 출국일본인수 모두 감소하였는데, 방일외객수는 2020년 4,115,828명, 2021년 245,862명으로, 출국일본인수는 2020년 3,174,219명, 2021년 512,244명으로 되었음

<그림8>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인적교류의 2022년 5월 상황

- <표10>은 2022년 5월 방일외객수의 국가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전체 수가 COVID-19 영향으로 2019년동월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전년(2021년)동월대비로는 증가하였음
- 2022년 5월 방일외객 전체 수는 147,000명으로 2019년동월(2,773,091명)대비 94.7% 감소하였고, 전년동월(10,035명)대비 1364.9% 증가하였음
- 방일외객 중 한국인 수는 8,800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826.3%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중국인 수는 17,600명으로 전체의 12.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865.4%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대만인 수는 1,900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481.0%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인도네시아인 수는 8,700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2752.5%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필리핀 수는 6,700명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973.7%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베트남인 수는 39,000명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9076.5%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미국인 수는 8,100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745.5% 증가한 수치임

〈표 10〉 방일외객수의 2022년 5월 상황

국가·지역	2019년 5월		2021년 5월		2022년 5월		2019년 동월대비 증감률 (%)	2021년 동월대비 증감률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전체	2,773,091	100.0	10,035	100.0	147,000	100.0	-94.7	1364.9
한국	603,394	21.8	950	9.5	8,800	6.0	-98.5	826.3
중국	756,365	27.3	1,823	18.2	17,600	12.0	-97.7	865.4
대만	426,537	15.4	327	3.3	1,900	1.3	-99.6	481.0
홍콩	189,007	6.8	65	0.6	700	0.5	-99.6	976.9
태국	107,857	3.9	235	2.3	2,900	2.0	-97.3	1134.0
싱가포르	37,650	1.4	37	0.4	1,200	0.8	-96.8	3143.2
말레이시아	42,629	1.5	146	1.5	1,600	1.1	-96.2	995.9
인도네시아	30,107	1.1	305	3.0	8,700	5.9	-71.1	2752.5
필리핀	59,578	2.1	624	6.2	6,700	4.6	-88.8	973.7
베트남	39,900	1.4	425	4.2	39,000	26.5	-2.3	9076.5
인도	19,914	0.7	459	4.6	4,500	3.1	-77.4	880.4
호주	46,223	1.7	85	0.8	1,500	1.0	-96.8	1664.7
미국	156,962	5.7	958	9.5	8,100	5.5	-94.8	745.5
캐나다	35,335	1.3	63	0.6	900	0.6	-97.5	1328.6
멕시코	5,482	0.2	37	0.4	200	0.1	-96.4	440.5
영국	31,642	1.1	193	1.9	1,900	1.3	-94.0	884.5
프랑스	30,863	1.1	209	2.1	2,000	1.4	-93.5	856.9
독일	21,552	0.8	217	2.2	2,200	1.5	-89.8	913.8
이탈리아	12,463	0.4	94	0.9	900	0.6	-92.8	857.4
스페인	9,971	0.4	158	1.6	500	0.3	-95.0	216.5
러시아	9,691	0.3	160	1.6	400	0.3	-95.9	150.0
중동지역	5,679	0.2	85	0.8	600	0.4	-89.4	605.9
기타	94,290	3.4	2,380	23.7	34,200	23.3	-63.7	1337.0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2년 6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2년 6월 20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1>과 같음

<표11>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20년	2021년	2021년 7-9월	2021년 10-12월	2022년 1-3월	2022년 2월	2022년 3월	2022년 4월	2022년 5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4.5	1.7	1.2	0.4	0.4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1.8	1.2	2.0	0.2	0.0	-0.5	0.8	-0.5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9.5	13.2	19.2	9.5	4.4	0.8	5.5	-2.5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81.5 -9.9	85.6 5.0	86.7 7.2	85.5 6.1	87.3 4.9	87.2 6.3	92.7 6.0	88.5 2.4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5.5	-0.9	-9.3	-13.9	-9.9	-11.8	-2.2	0.4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11.7 -6.4	12.2 5.1	13.6 7.8	1.3 1.4	-0.8 1.3	2.7 -0.9	-1.4 0.0	-4.4 P -9.0	P -3.5 P 4.7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10.4	5.6	5.4	0.9	-0.6	0.5	-1.7	-4.9	
<법인경상이익-재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27.3	41.8	35.1	24.7	13.7				
<도산> 기업도산건수(건) 증감률	7,773 -7.2	6,030 -22.4	1,447 -28.4	1,539 -12.1	1,504 -3.2	459 2.9	593 -6.4	486 1.8	524 11.0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8	2.8	2.8	2.7	2.7	2.7	2.6	2.5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1.2 0.0	4.5 -0.2	5.8 -0.2	8.4 0.5	9.2 0.9	9.8 0.9	9.3 1.2	9.8 2.5	P 9.1
<금융> 닛케이평균주가(엔) 환율(엔/\$)	22,705 106.73	28,836 109.89	28,553 110.09	28,810 113.70	27,156 116.32	27,066 115.20	26,584 118.51	27,043 126.04	26,653 128.78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2년 5월, 6월 등)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수요측 통계인 ‘가계조사’ (4월)에서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대비 1.0% 증가하였고,

판매측 통계인 ‘상업동태통계’ (4월)에서는 소매업판매액이 전월대비 1.0% 증가하였음

- 실질총고용자소득은 보합권내로 되어 있고, 소비자 심리는 하락세가 멈추는 조짐이 보임
- 최근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면, 신차판매대수는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임
- 가전판매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지만, 회복되고 있음
- 외식은 최근 회복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감염대책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제사회 활동의 정상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회복되어 갈 것으로 기대됨

○ 설비투자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 (1-3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2022년 1-3월기는 전기(前期)대비 0.3% 증가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동(同) 1.7% 증가, 비제조업이 동(同) 0.3% 감소하였음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소프트웨어 투자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3월 조사) 및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4-6월기 조사)에 따르면, 전체산업의 2022년도 설비투자 계획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대체적으로 보합상태로 되어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건축공사비 예정액도 회복 움직임이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기업수익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회복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 주택건설은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음

- 자가주택 착공은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착공은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음
- 총 호수는 4월에 전월대비 4.6% 감소인 연율 88.5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대체적으로 보합상태로 되어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최근 바닥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음

- 3월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대비 1.1% 증가, 5월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대비 2.0% 감소, 4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대비 15.6% 증가하였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보정예산의 효과도 있어서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이며, 수입은 하락이 멈추고 있으며,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나타나고 있음
 -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에 관해서는 5월 방일외객수는 2019년 대비 94.7% 감소하였음
 - 수입은 하락이 멈추고 있음
 -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되어 있는데, 4월 무역수지는 수입금액 증가로 적자폭이 확대되었고, 서비스수지는 적자폭이 축소되었음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회복 움직임에 답보상태가 보임
 - 광공업생산지수는 4월에 전월대비 1.5% 감소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4월에 전월 대비 2.3% 감소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5월은 전월대비 4.8% 증가, 6월은 전월대비 8.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회복에 답보 상태가 보이고, 생산용 기계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전자제품·디바이스는 최근 증가추세가 둔화하고 있음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국 경제활동 억제의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공급 측면에서의 제약 등에 따른 하향 리스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상황에 관해 의견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제3차 산업 활동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기업 이익은 일부 약세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개선되고 있고,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이고, 도산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법인기업통계계보(1-3월기)에 따르면, 2022년 1-3월기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13.7%

증가, 전기 대비 0.2% 증가로 나타남

- 기업의 업황 판단에는 회복 움직임에 담보 상태가 보임
- 도산 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인데, 4월 486건 이후 5월은 524건으로 나타남
- 고용 상황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완전실업률은 4월에 전월대비 0.1% 포인트 낮아져 2.5%로 됨
 - 노동력 인구 및 취업자수는 증가하였고, 완전실업자수는 감소하였음
 - 취업률은 보합권내이며, 신규구인수, 유효구인배율 및 제조업 잔업시간은 회복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는 최근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현금급여총액은 보합권내로 되어 있으며,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보합권내로 되어 있음
 - 일본은행 短觀(3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 판단은 부족초과로 나타남
 - 또한 당장의 상황에 관해서는 일일 유효구인건수나 민간의 구인 동향은 회복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되어 갈 것으로 기대됨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기업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최근 상승하고 있음
 - 5월 국내기업물가는 전월대비 0.0%로 나타났고, 수입물가(엔 기준)는 상승하고 있음
 - 기업 대상 서비스 가격 기조를 ‘국제운수를 제외한 기준’으로 보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 소비자 물가 기조를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근 상승하고 있음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 (2인 이상 세대)로 살펴보면, 5월에는 전월대비 0.7% 포인트 상승하여 94.4%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당분간 상승해 갈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상승 후 하락하였고, 엔/달러 환율은 엔저 방향으로 추이함
 - 주가는 26,600엔대에서 28,200엔대로 상승하였다가 26,400엔대로 하락하였음
 - 엔/달러 환율은 127엔대에서 134엔대까지 엔저 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금리는 -0.04%대에서 -0.01%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에는 큰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숙박·음식서비스 등에서는 여전히 엄중함이 보이고 있음
-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대비 0.9%(5월) 증가하였음
- 머니터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대비 4.6%(5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대비 3.2%(5월)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의 2022년 6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2년 6월 20일)

- 일본 정부는 금후에도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재정 운영의 틀을 견지하고, 민간수요 주도의 자율적인 성장과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경제상황 등을 주시하고, 주저 없이 기동적인 거시경제 운영을 실행해 나갈
- ‘코로나극복·신시대개척을 위한 경제대책’을 구체화하는 2021년도 보정예산 및 2022년도 예산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함
 - ‘코로나 재난에서의 「원유가격·물가급등 등 종합긴급대책」’을 실행함과 더불어,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를 설립하여 단절이 없는 대응책으로서 예비비의 기동적인 활용을 비롯하여 물가·경기 양쪽 측면의 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함
- 그 위에 6월 7일에 각의 결정한 골태방침(骨太方針)2022 및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 디자인 및 실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시책을 착실히 실행함과 더불어, 이를 앞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방책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김
- 일본은행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에 만전을 기함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금융완화를 계속하는 조치가 취해져 있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할 것을 기대함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금융완화 정책 및 경제안전보장 정책

○ 금융완화 정책

- 엔 시세의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엔저의 배경에는 세계 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의 정책 스탠스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구미의 주요 중앙은행이 금융정책의 긴축을 가속화하고 있음
-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계속해 온 유럽중앙은행도 6월 9일 정례이사회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기에, 대규모 금융완화를 이어가는 일본과의 정책 차이가 선명해지고 있음
- 일본은행은 6월 16~17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초금융 완화를 계속하기로 했음
- 총무성이 6월 24일 발표한 5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5%로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 구입을 자주 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경향이 있었음
-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에너지나 식량 등 해외발 비용 상승이나 엔화 약세에 의한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경제안전보장 적격성 평가

-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정보의 취급자격인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Security Clearance, 적격성 평가)’ 제도화를 위해 내년 통상 국회에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을 확정했음
- 적격성 평가는 AI 및 양자기술 등 최첨단 기술에 관한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관계자에게 자격을 부여해 취급자를 명확하게 하고 군사전용이 가능한 기술 및 민간의 국제경쟁력에 관련된 정보가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출처: 산케이신문, 2022.06.19.; 닛케이신문, 2022.06.13., 2022.06.24.; 마이니치신문, 2022.06.13.; 아사히신문, 2022.06.17.)

□ 에너지 관련 정책 및 전력 관련 동향

○ 에너지 관련 정책 동향

- 일본정부는 향후 경제 재정 운영의 지침이 되는 올해 ‘골태방침(骨太方針: 중요골자방침)’ 원안에 원자력에 대해 작년에는 포함되었던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기를 보류했으나,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 한편, 시마네현의 마루야마 다쓰야 지사는 주고쿠전력 시마네 원자력 발전소 2호기의 재가동을 용인할 생각을 표명했으며, 권내 지자체 및 현 의회도 동의하고 있어 현지의 절차는 종료했음
- 다만, 안전대책 공사를 마친 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동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함
- 탈탄소화의 진전과 더불어 G7(선진 7개국)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저감을 내세우고 있어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중요해지고 있음
-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대체 전원으로 기대되는 해상풍력발전의 입찰에 대해 운전 개시까지의 기간이 짧은 사업자가 낙찰받기 쉽도록 평가 기준의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함
- 비용뿐만 아니라, 사업의 신속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공급망 조기 구축을 목표로 함

○ 전력공급의 부족 및 전기요금 인상

- 경제산업성은 6월 28일 도쿄전력 관내에 내리고 있는 ‘전력수급궤박주의보’를 29일에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 주의보는 전력공급 여력을 나타내는 예비율 상정이 5%를 밑돌 경우에 발령함
- 대형 전력회사 10곳이 6월 29일 발표한 8월 가정용 전기요금을 보면 도쿄전력 등 4개사가 7월 요금부터 인상을 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수반해 액화천연가스 및 석탄 등 화력 발전의 연료비 급등이 영향을 미쳐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음
- 가격의 인상은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추가할 수 있는 ‘연료비 조정제도’를 반영했기 때문임
- 이런 가운데 각 사는 7월 이후를 대상으로 독자적인 절전 촉진책을 내놓고 있는데, 절전분을 외부의 전자화폐 등으로 환원 가능한 포인트로 부여하여 절전과 가계부담 경감의 양립을 도모함

- 다만, 대상이 되는 요금제의 한정이나, 이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가정에게는 혜택이 적다는 등의 과제가 있음

(출처: 요미우리신문, 2022.06.28.; 산케이신문, 2022.06.01., 2022.06.03., 2022.06.29.; 아사히신문, 2022.06.03.)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철강산업 및 수소산업

- 일본 철강 대기업들의 협력 및 수소 관련 투자
 - 일본제철, JFE스틸, 고베제강소 등 철강 대기업 3사는 6월 15일 수소의 활용 등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기술개발에서 협력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 철강업계는 일본 국내 제조업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를 차지해 삭감이 급선무가 되고 있는데, 각 회사는 탈탄소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연구개발에만 수천억 엔 규모의 비용이 부담스러웠음
 - 협력 프로젝트에서는 수소를 활용한 두 종류의 제철 기술을 각사가 시험용 고로 등을 사용해 실증하며 기술개발에는 총액 4,363억 엔을 투입하는데, 이 중 약 40%는 일본정부의 탈탄소 기술기금에서 지원받을 계획임
 -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은 6월 23일 재생 가능 에너지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수전해 장치를 다루는 미국 신항기업 일렉트릭·하이드로젠에 미국과 유럽 5개사와 공동으로 출자했다고 밝혔으며, 탈탄소 기술에 세계 대기업이 자금을 투입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출처: 요미우리신문, 2022.06.16.; 닛케이신문, 2022.06.23.)

□ 자동차산업 및 반도체산업

- 혼다의 중국시장 EV 전략 강화와 교세라 반도체 산업
 - 혼다는 6월 20일 중국의 현지 합작인 ‘광기혼다자동차(广汽本田汽車)’가 광저우시에서 전기자동차(EV) 전용의 신공장 건설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 2024년 가동을 목표로 연간 생산능력은 12만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혼다는 중국에서 EV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 교세라는 반도체를 보호하는 패키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확장하는 등 2023년 3월기에 역대 최대인 2,000억 엔을 투입함
- 리스크 분산을 특기로 하는 동사가 반도체에 힘을 싣는 이유에 대해 다니모토 히데오 사장은 반도체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 한편, 2023년 이후 수요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반도체를 구세대품과 첨단품으로 구분하였을 때, 첨단제품의 공급은 아직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음

(출처: 마이니치신문, 2022.06.22.; 닛케이신문, 2022. 06.29.)